

청년층-남녀 정치의식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2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청년층 정치의식”조사,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청년층은 기성정치에 새로운 의식을 더함으로써 정치 발전을 이루어 갈 주제임. 청년층이 정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남녀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정치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은 전국 거주 20세부터 35세까지 청년층 남성 450명, 여성 450명, 총인원 900명임. 조사기간은 '1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간 6일간이며,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항목은 여성정치, 정치관심도, 정치관련활동 경험, 투표, 청년층 현안 과제로 구성함.
- 청년층은 조사결과에서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은 인터넷 세대로서 정치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인적으로는 국가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시민의 힘은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인식함. 청년층은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86.6%로 높게 나타남. 또한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편이며, 시민교육참여 의향도 절반을 넘음.
- 청년층은 투표 시에 지지후보 선택기준이 공약 및 정책내용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게 바라는 현안과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 등에서는 남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발견함.

- 청년층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음. 여성정치에 대한 견해는 남녀가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하여 도입한 여성공천 할당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임. 또한, 시민으로서 참여의 필요성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시민교육 참여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정치관련 활동 경험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남.

II. 청년층 정치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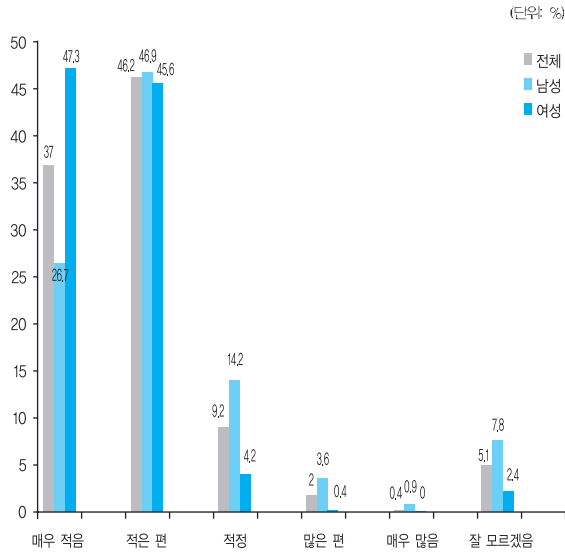
이슈 #1

여성정치(Women Politics)에 대한 인식

- ☑ 여성 정치인 수가 '적다'는 인식은 공유하나 성별 간에는 차이가 있음

- 청년층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 수가 남성 숫자와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3.2%(매우적음 37.0%, 적은 편 46.2%)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은 92.9%, 남성은 73.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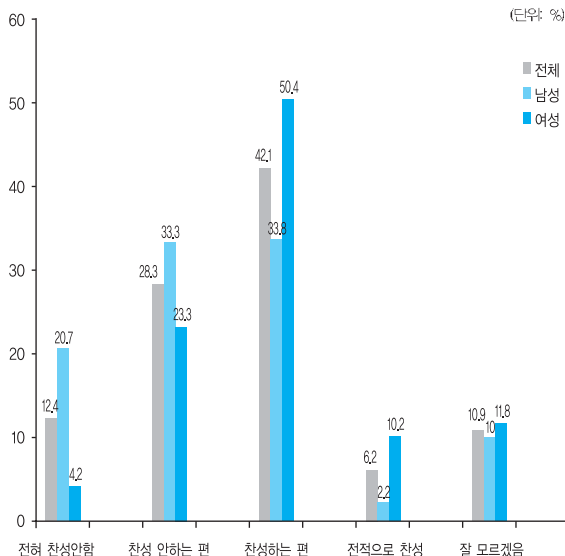
〈그림 1〉 여성 정치대표성 인식



☞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한 찬성률은 여성 60.7%, 남성 36.0%로 나타남

- 여성 정치인을 늘리기 위해 공천 시 여성할당제를 두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묻은 결과 '반대'가 40.8%(전혀 찬성 안함 12.4%, 찬성안하는 편 28.3%)로 나타났고, '찬성'이 48.3%(찬성하는 편 42.1%, 전적으로 찬성 6.2%)로 나타남. 성별을 분리하여 보면 '찬성' 응답률이 여성 60.7%(찬성하는 편 50.4%, 전적으로 찬성 10.2%), 남성 36.0%(찬성하는 편 33.8%, 전적으로 찬성 2.2%)로 차이를 드러냄.

〈그림 2〉 여성 공천할당제에 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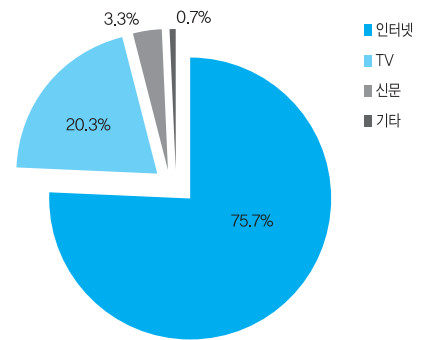
이슈 #2

정치관심도

☞ 청년층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

- 주요 정보획득원으로 '인터넷'이 75.7%, 'TV'는 20.3%, '신문'은 3.3%로 나타나 인터넷이 우선적으로 꼽힘. '인터넷'이 주요 정보획득원이라는 응답률은 남성(77.1%)이 여성(74.2%)보다 다소 높으며, 'TV'는 남성(17.8%)보다는 여성(22.9%)이 약간 높음. 연령별로는 20대 초반(78.8%), 20대 후반(81.6%)이 30대 초반(68.5%)에 비하여 인터넷이 주요정보획득원이라는 응답률이 높음.

〈그림 3〉 주요 정보 획득원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치기사에 다소 관심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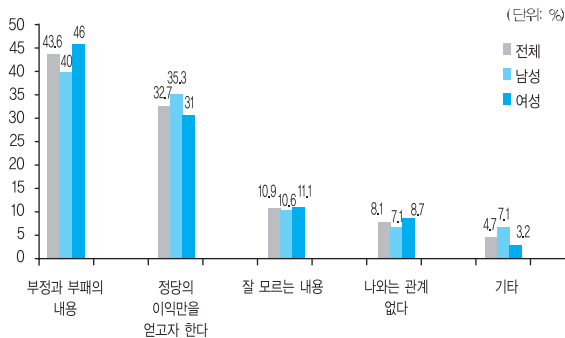
- 청년층의 정치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아님. '관심없다'(전혀 관심 없음 4%,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편 22.0%)고 응답하는 비율이 26.0%인데 비하여 '관심있다'(관심을 가지는 편 64.2%, 매우 관심 있음 12.3%)는 응답률이 76.5%로 더 높음. 성별 간에는 차이가 있어서 '관심 있다(매우 관심있음, 관심을 가지는 편)'는 응답률이 남성 80.8%, 여성 72.0%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음.

☞ 정치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정치관심을 줄임

- 정치 기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청년들은 정치 기사가 '부정과 부패의 내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43.6%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정

당의 이익만을 얻고자 한다(32.7)', '잘 모르는 내용(10.9%)'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 간 차이 없이 남녀 모두 '부정과 부패의 내용' 이미지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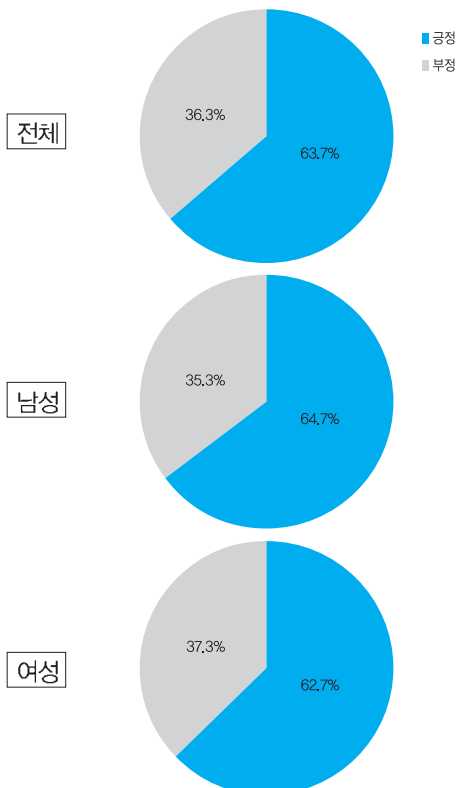
〈그림 4〉 정치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 정치인에 대한 관심으로 '선거시 출마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률은 63.7%(그런 편이다 50.8%, 매우 그렇다 12.9%)로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률이 남성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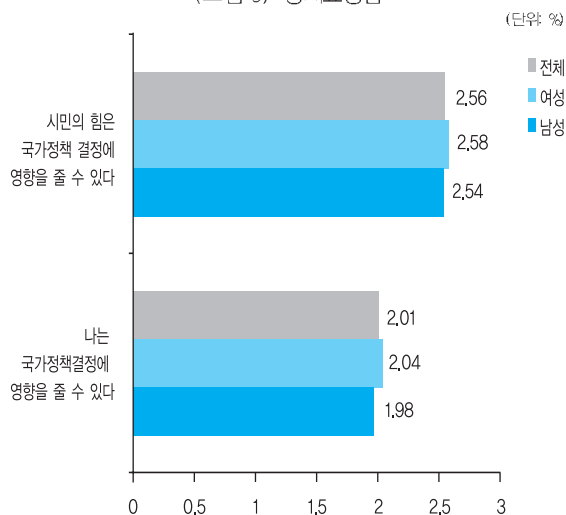
〈그림 5〉 선거시기의 후보자에 대한 관심



☞ 시민의 힘은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며, 개인의 영향력은 약한 것으로 인식

- 개인과 시민의 힘을 구분하여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알아봄. '나는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률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21.0%(그런 편이다 19.0%, 매우 그렇다 2.0%)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79%(전혀 그렇지 않다 2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6.7%)로 나타나 개인이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성별 간에는 차이가 없음. 4점 척도로 묻은 결과에서 평균값으로는 전체 2.01, 여성 2.04, 남성 1.98임.
- 집단적 영향력인 '시민의 힘은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은 56.4%(그런 편이다 45.2%, 매우 그렇다 11.2%)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43.6%(전혀 그렇지 않다 1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8%)로 나타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성별 간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에서 남성(56.9%)과 여성(56.0%)의 큰 차이가 없음. 4점 척도의 평균값으로는 전체 2.56, 여성 2.58, 남성 2.54임.

〈그림 6〉 정치효능감



* 4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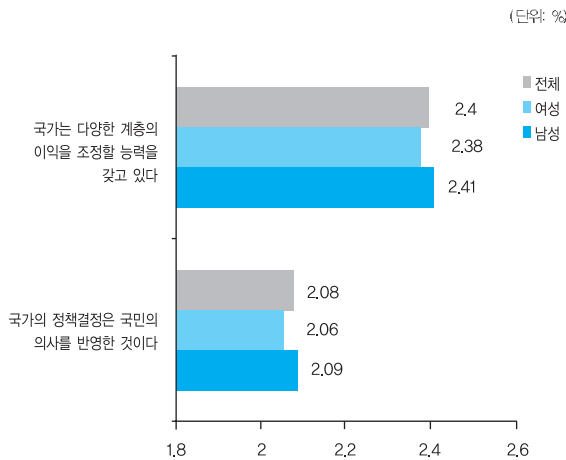
☞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은 낮게 평가

- 정치 신뢰감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에

‘그렇다’는 응답률은 26.3%(그런 편이다 21.1%, 매우 그렇다 5.2%)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73.7%(전혀 그렇지 않다 2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7%)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성별 간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남성(27.8%)과 여성(24.9%)이 큰 차이가 없음. 4점 척도 평균값으로는 전체 2.08, 여성 2.06, 남성 2.09임.

- 또한 ‘국가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조정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률은 48.7%(그런 편이다 38.9%, 매우 그렇다 9.8%)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51.3%(전혀 그렇지 않다 1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7%)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성별 간에는 긍정적 응답률에서 남성(49.1%)과 여성(48.2%)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점 척도 평균값으로는 전체 2.4, 여성 2.38, 남성 2.41임.

〈그림 7〉 정치신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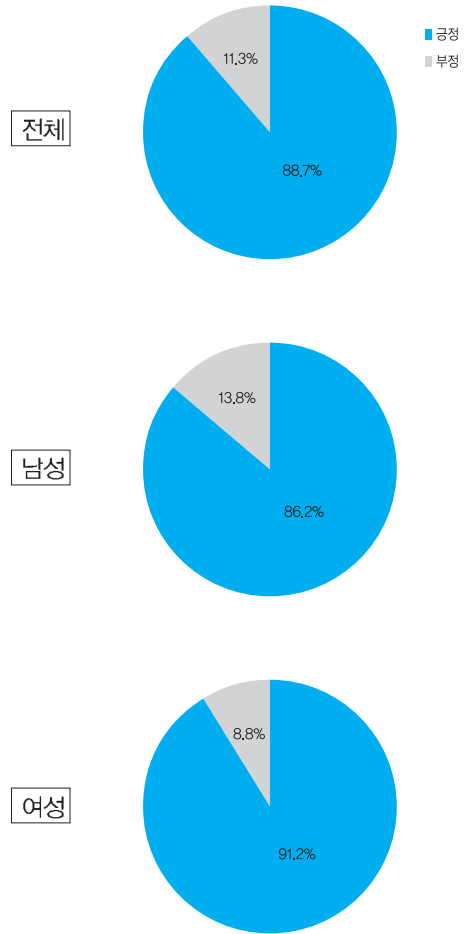


* 4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

☞ 민주시민의식은 높은 편이며, 시민교육 참여의향은 6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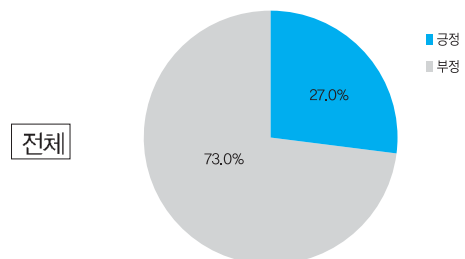
- 민주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개의 항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시민으로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에 동의정도는 ‘그렇다’는 응답률은 88.7%(그런 편이다 67.9%, 매우 그렇다 20.8%),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1.3%(전혀 그렇지 않다 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9.2%)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긍정적 응답률이 남성(86.2%)보다 여성(91.2%)이 높게 나타남.

〈그림 8〉 참여필요성 동의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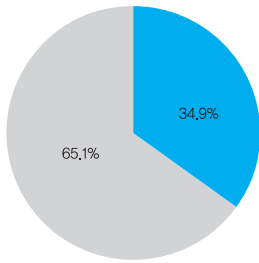


- ‘학교 이외에 기관을 통해 시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은 27.0%(그런 편이다 22.0%, 매우 그렇다 5.0%)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73.0%(전혀 그렇지 않다 20.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7%)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시민교육참여경험에서 남성(34.9%)이 여성(19.1%)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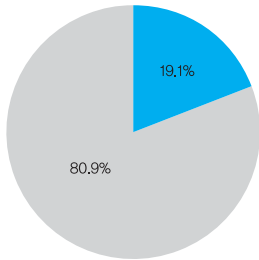
〈그림 9〉 시민교육 참여경험 여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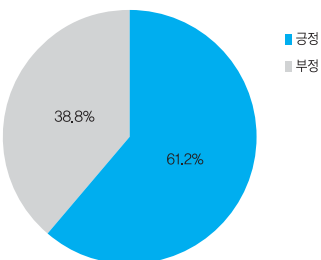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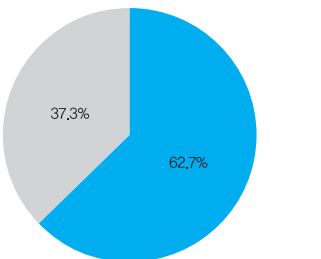
- '좋은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률은 61.2%(그런 편이다 53.0%, 매우 그렇다 8.2%)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남성의 참여의향 62.7%, 여성 59.7%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그림 10〉 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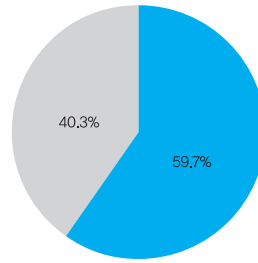
전체



남성



여성



이슈 #3

정치관련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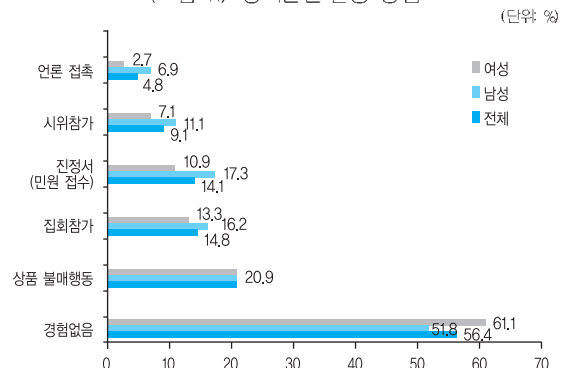
☞ 지지 정당 선호결정, 정당가입률은 낮음

- 청년층은 지지정당이 있다는 응답률은 37.9%임. 연령별로는 20대 초반(34.7%), 20대 후반(36.5%)에 비하여 30대 초반(41.1%)에서 '지지정당이 있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음. 직업별로는 학생의 '있다'는 응답률이 44.4%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고, 무직의 경우 지지정당이 있다는 응답률이 28.3%로 가장 낮음. 관리/사무직은 35.9%, 전문/기술직 38.5%, 생산/판매직 38.3%, 주부 32.1%임.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자의 정당가입률은 9.4%로 낮은 상태임

☞ 조사응답자의 56.4%는 정치관련 활동 경험이 '없음'으로 나타남

- 정치와 관련한 활동에 중복응답 표시하도록 한 결과 '경험없음'에 대한 응답률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품 불매행동(20.9%)', '집회 참가(14.8%)', '진정서(14.1%)' 등에 대한 경험은 낮은 비율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경험없음' 응답률이 남성(51.8%)보다 여성(61.1%)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1〉 정치관련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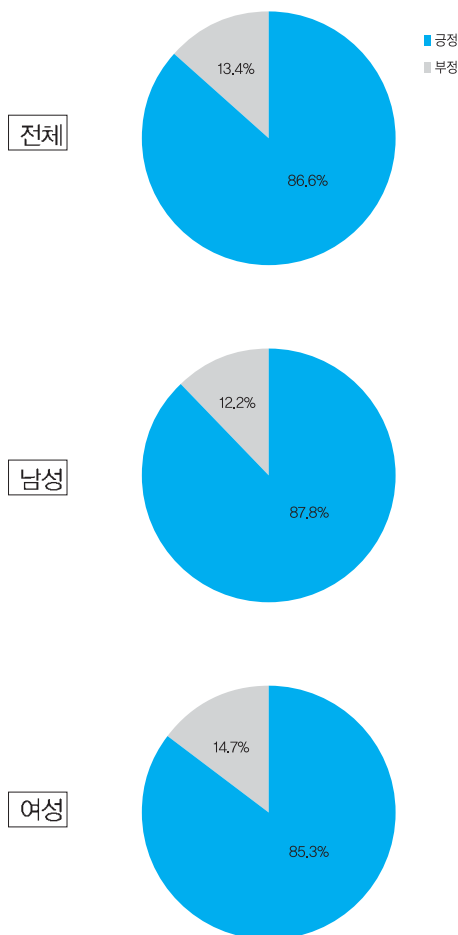
이슈 #4

청년층의 투표

6·2 지방선거 투표 참여 의향은 86.6%임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의향은 86.6%임. 성별 간에는 남성 87.8%, 여성 85.3%로 차이를 드러내지 않음.

〈그림 12〉 6·2 지방선거 투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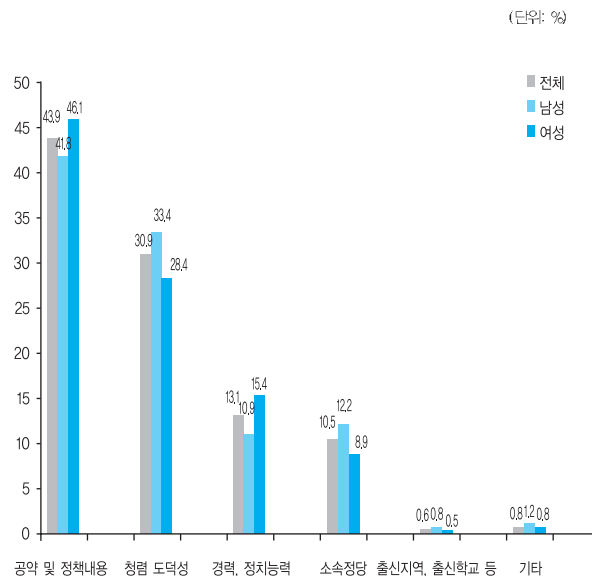


6·2 지방선거 지지후보 선택 기준은 공약 및 정책 내용, 청렴/도덕성, 경력/정치능력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남

- 투표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지지 후보 선택 기준은 '공약 및 정책내용' 응답률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렴/도덕성

(30.9%)', '경력/정치능력(13.1%)' 순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게서 '공약 및 정책내용'이 지지후보 선택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음. 성별 간에는 '공약 및 정책내용'에 남성 41.8%, 여성 46.1%, '청렴/도덕성'에 남성 33.4%, 여성 28.4%, '경력/정치능력'에 남성 10.9%, 여성 15.4%, '소속정당'에 남성 12.2%, 여성 8.9% 등으로 나타나 후보자 선택기준에서 여성이 '공약 및 정책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이로써 여성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3〉 6·2 지방선거 지지후보 선택 기준



공약의 실효성이 없는 점과 개인사정을 투표 불참이유로 꼽음

- 6·2 지방선거에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믿지 못하므로'가 28.1%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개인 사정(25.6%)',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가 없어서(18.2%)' 순으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여성의 경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믿지 못하므로'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개인사정'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투표행동이 가치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정치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표 1〉 6·2 지방선거 투표 비의향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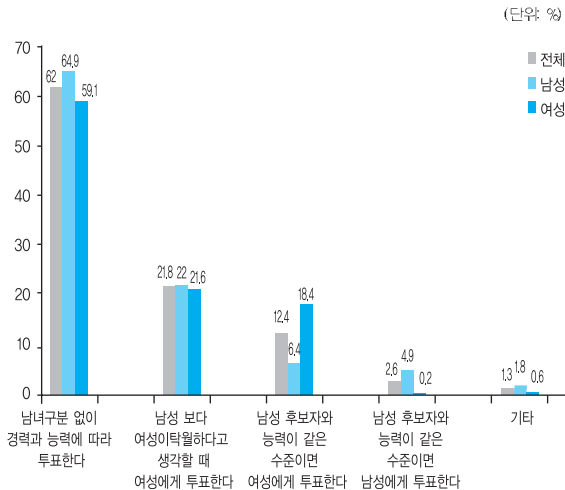
(단위: 명/%)

	공약 실현 가능성을 인지 못하므로	개인사정 때문에	당선 시키고 싶은 후보자가 없어서	후보자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서	정치나 선거와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34(28.1)	31(25.6)	22(18.2)	14(11.6)	11(9.1)	9(7.4)	121(100)
남성	14(25.5)	15(27.3)	11(18.2)	7(12.7)	5(9.1)	4(7.3)	55(100)
여성	20(30.3)	16(24.2)	12(18.2)	7(10.6)	6(9.1)	5(7.6)	66(100)

☞ 여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응답함

- 본인의 투표구에 여성 후보자가 있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은 결과, '남녀 구분 없이 경력과 능력에 따라 투표한다'는 응답률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후보자에 대한 투표 행위에서는 성차별적인 행동(남성후보자와 능력이 같은 수준이면 남성에 투표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는 2.6%로 낮게 나타남

〈그림 14〉 여성후보자에 대한 투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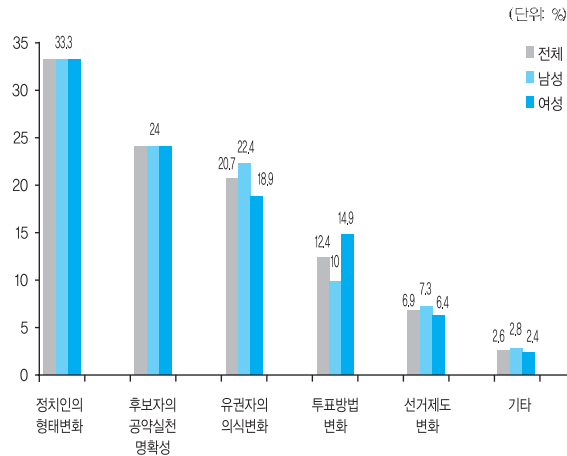


☞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으로는 '정치인의 행태 변화', '공약실천 명확성', '유권자 인식 변화', '투표방법 변화'가 제안됨

-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정치인의 행태 변화'

에 대한 응답률이 33.3%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은 '후보자의 공약 실천 명확성(24.0%)', '유권자의 인식 변화(20.7%)', '투표방법의 변화(12.4%)' 순으로 나타남. 성별 간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투표방법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남성(10.0%)보다 여성(14.9%)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그림 15〉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서는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게 나타남

-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 대상의 방안으로는 '참여 또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투표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줌(32.0%)', '후보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유권자에게 있어야 함(21.0%)' 순으로 나타남.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 대상 방안

(단위: 명/%)

	참여 또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게 함	투표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줌	후보자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유권자에게 있어야 함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칙을 부여함	정치인 개선, 의식 변화	기타	계
전체	355(39.4)	288(32.0)	189(21.0)	46(5.1)	10(1.1)	12(1.3)	900(100)
남성	163(36.2)	158(35.1)	86(19.8)	27(6.0)	7(1.6)	6(1.3)	450(100)
여성	192(42.7)	130(28.9)	103(22.2)	19(4.2)	3(0.7)	6(1.3)	450(100)

이슈 #5

청년층의 현안

☞ 청년층이 해결을 기대하는 정부 과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며, 복지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음

-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당면과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35.9%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은 '맞춤형 복지(21.9%)', '사회 안전망 강화(16.0%)'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남. 성별 간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 40.7%, 여성 31.1%로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맞춤형 복지'를 선택한 응답률은 남성 14.2%, 여성 29.6%로 나타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표 3〉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정부 과제

단위: 명(%)

	일자리를 만드는 일	맞춤형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	주거 안정	기업활동 및 과학 기술 진흥	기타	계
전체	323(35.9)	197(21.9)	144(16.0)	87(9.7)	42(4.7)	107(11.9)	900(100)
남성	183(40.7)	64(14.2)	73(16.2)	50(11.1)	35(7.8)	45(10.0)	450(100)
여성	140(31.1)	133(29.6)	71(15.8)	37(8.2)	7(1.6)	62(13.7)	450(100)

III. 정치발전을 위한 시사점

☞ 청년층 대상 여성정치 대표성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 청년층은 우리나라 여성정치인 수가 적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여성보다 낮음.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 공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청년층 남녀의 찬성 정도를 알아본 바 이 제도에 대한 남성 찬성률이 36.0%에 그침. 여성이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60.7%를 나타내는 것과 차이가 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보다 증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투표방법의 변화 및 투표자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 청년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아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묻은 결과에서 정치인의 행태 변화, 후보자의 공약 실천 명확성, 유권자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투표방법의 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청년층이 인터넷 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사용한 투표 방법이 도입된다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면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의 활성화

- 청년층의 투표의향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공약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우선적인 이유로 나타났음. 투표 참여에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볼 때, 공약실현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일이 필요한 이러한 유형의 활동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공약의 현실 적합성, 공약의 실천 정도 평가 등 정치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함

☞ 청년층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층의 정치관심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지 않음. 저연령층으로 정치관련 경험은 미약하나 시민의 힘은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청년층은 정치교육 또는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높음. 그러나 유권자 운동이 청년층에게는 활성화되지 않음. 청년층에게는 적극적 시민의식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있기를 바람. 이러한 일에 정부 자원과 함께 시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함.